청소년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하경연 · 강인언*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조교수
한국국제대학교 교직과정부 교수*

The effects of adolescents' demographic variables,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their self-esteem

Ha Kyungyun · Kang Ine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School of Education Scienc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str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family environment on self-esteem with the subject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serious stress and great interest in appearance among the adolescenc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during June, 2012, and the research method employed was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contents about self-esteem, str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demographical variables.

Regarding the adolescents' stress, generally, influential variables include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friends, school records, or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 adolescences' self-esteem was the crucial variable to indicated socio-psychological adaptation. And it was related with stress 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Key Word : stress(스트레스), self-esteem(자아존중감),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외모관리행동)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갑작스런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불안을 가장 많이 겪는 시기이다¹⁾. 즉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도 심리적 갈등 및 성취, 경쟁 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고독감, 열등감,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적 현상은 감정 또는 열등감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청소년의 보다 긍정적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인간상호 간의 작은 성취나 칭찬 또는 성공을 통해서 형성되는데²⁾,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주 불안을 느끼거나 우울해지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또한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성적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³⁾,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5명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관 및 학교, 가정 등 사회전반에서 청소년에게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업문제, 진학문제, 친구관계 또는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외모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서적인 불안정과 함께 때로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⁴⁾. 최근 들어서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져 학교생활 및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가정에서부터이며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사소통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⁵⁾.

한편,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크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 없거나 불만족하는 심리적 상태는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 이유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외모가 자신의 경쟁력으로까지 평가되는 사회적 현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인 외모지상주의 현상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과거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집착이 논란이 될 정도로 보다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으로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일상적 외모관리와 성형욕구, 다이어트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⁸⁾, 이러한 행동은 일반 성인들과 비슷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 심각한 스트레스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가정환경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자아형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모관리행동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와 심리적변인

1) 청소년기와 스트레스

청소년기를 위기의 시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데⁹⁾,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력 부족과 동시에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정신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쉽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¹⁰⁾.

스트레스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정신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는 사춘기와 더불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많이 경험한다¹¹⁾¹²⁾¹³⁾.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학교생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이며¹⁴⁾¹⁵⁾¹⁶⁾,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행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¹⁷⁾¹⁸⁾.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¹⁹⁾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보다 한 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 외모, 부모와의 관계 순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어,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비행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즉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부모 관심 정도에 따라 심각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학업성적 또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아,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긍정적인 대인관계 등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²¹⁾²²⁾²³⁾.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을수록, 친구관계가 나쁠수록, 학교생활에 불만족 할수록 스트레스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한편, 친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어, 친구애착 또는 또래 집단 내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²⁶⁾²⁷⁾.

가정은 개개인이 생활하고 보호받는 터전인 동시에 한 사회를 유지·존속시키는 최소의 기초 단위로서, 가정환경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 동안 정서적·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정환경의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인 부모의 안정적인 결혼 상태는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자아개념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부모에 대한 기본 신뢰는 청소년기의 성격발달에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²⁸⁾²⁹⁾.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기의 자아형성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³⁰⁾, 부모의 자아관 또한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주었다³¹⁾. 즉, 부모의 자아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녀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하며,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²⁾. 김정현³³⁾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하며, 대인관계도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석의 연구³⁴⁾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사소통이 많더라도 대화내용이 어떠한 상황에 대한 사실이나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우울감 및 자살충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가족구조의 형태,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족배경요인은 학교생활적응에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상의 내용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는 대체로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적, 학교생활만족도 등이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형성과정에 부모의 양육방식 및 자아관, 가족배경요인 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나 유대관계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스트레스에 부모의 동거여부 및 학력, 학생 개인의 용돈 등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한 Cooper smith³⁶⁾는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자신의 능력과 의미, 성공,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정도는 물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³⁷⁾.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이며, 무가치한 인물로 생각하며 자주 불안, 우울, 슬픔을 느끼거나 우울해지며 불행하다고 느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을 느끼지 못하며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인 특징이 있다³⁸⁾.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자아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소외감, 외로움, 혼란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긴장과 혼란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의 성격발달 및 환경적응, 긍정적 자아실현 등 사회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자아개념과 스트레스 관련한 김요셉 등의 연구⁴¹⁾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독립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자기신뢰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지혜⁴²⁾와 조원익⁴³⁾은 부모간의 관계가, 친구애착, 학교성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므로, 외모 관련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외모만족수준이 우울증이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련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았으나⁴⁴⁾ 미용성형행동은 낮게 나타나, 성형보다는 가벼운 메이크업 등으로 외모관리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장선철, 송미현⁴⁶⁾은 남녀공학보다는 여고생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

생이 외모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자존감이 외모만족감 및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이며, 스트레스나 외모관리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모관리행동

건강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아존중감이 필요하며, 외모관리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⁷⁾. 외모는 자아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사람들과의 의사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⁴⁸⁾. 최근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외모관리행동 또한 다양해지고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아름다운 외모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미용성형까지도 더욱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용성형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원활함, 성공적인 취업 등의 다양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한편, 외모관리행동은 대체로 체중조절, 미용성형,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으로 구분되었으며⁵⁰⁾⁵¹⁾⁵²⁾,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존감이 높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보다 적극적이며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조, 정혜은⁵³⁾은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수술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 당당해지며 스스로 지위상승에 대한 만족으로 심리적 안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⁵⁴⁾, 고등학생의 경우 피부관리 보다는 메이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⁵⁾. 성형수술 시기는 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많이 하며, 수술부위는 쌍꺼

폴 수술과 코 수술이 많고, 수술결과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한편,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외모만족도도 높아지고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또한 외모만족 형성에는 친구나 교사보다는 가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그리고 부모 교육정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얼굴에 대한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외모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용돈수준이 높을수록 얼굴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외모관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⁹⁾.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외모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도 외모관리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12년 6월중에 시행하였으며, 설문지를 사용한 조사연구법이었다. 설문지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인구통계적 변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경남 진주지역에 거주하는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여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연구자가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는 응답한 후 즉시 회수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39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 유형은 인문계 235(60.1%), 전문계 156(39.9%)이었다. 부학력은 고졸 이하 194명(50.5%), 대졸 이상 190명(48.6%)이었으며, 모학력은 고졸 이하 236명(62.3%), 대졸 이상 143명(37.7%)이었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동거 311명(80.6%), 부모비동거 75명(19.4%)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와 동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5만원미만 163명(42.0%),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42명(36.6%), 10만원 이상 83명(21.4%)의 분포를 나타냈다.

2.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뜻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⁶⁰⁾에서 본 연구 대상자에 부합하는 10문항을 선택하였다. 이 10문항에 대하여 신뢰도 검사 결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문항제거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1개 문항을 제거한 9개 문항이 연구에 선택되어졌으며, 9 문항의 신뢰도는 .82였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때 느끼는 심리적·신체적 긴장 상태를 뜻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청소년기를 고려하며, 스트레스의 범위를 학업성적, 부모관심, 친구관계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⁶¹⁾⁶²⁾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으며, 총 2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내용이 더 그러하다는 것을 뜻하였다.

스트레스의 27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 수는 3개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학업성적스트레스'로 모두 8개 문항이며, 신뢰도 α 값은 .86이었다. 요인 2는 '부모관심스트레스'로 모두 5개 문항이며, 신뢰도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친구관계스트레스'로 모두 5개 문항으로, 신뢰도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외모를 위한 자신의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관리행동을 뜻하며, 그 내용은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상적 외모관리, 성형욕구, 다이어트 등이었다. 외모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⁶³⁾⁶⁴⁾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종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방법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외모관리의 15개의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 수는 3개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화장 및 헤어 스타일 연출'로서 모두 8개 문항이었으며, 신뢰도 α 값은 .83이었다. 요인 2는 '미용성형'으로서 모두 2개 문항이었으며, 신뢰도 α 값은 .81이었다. 요인 3은 '다이어트'로서 모두 4개 문항이었으며, 신뢰도 α 값은 .75로 나타났다.

4) 인구통계적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은 학교유형, 부모학력, 부모동거여부, 용돈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가정환경과 관계가 있으며⁶⁵⁾, 아버지의 경우에는 경제력을, 어머니의 경우에는 양육을 주도하기 때문에 양육의 주체가 되는 어머니의 학력이 자녀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정하게 되었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⁶⁶⁾⁶⁷⁾⁶⁸⁾의 결과를 토대로 부모동거여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따라서 부모동거여부와 부모비동거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12.0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요인

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t-검정,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학교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학업성적스트레스, 부모관심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인문계가 전문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 및 부모관심스트레스는 인문계 학생이 더 높았다. 즉 자아존중감의 경우 인문계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고 이에 따른 부모의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학업성적 및 부모관심 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관심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비동거가 부모동거 보다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비동거의 경우 주로 이혼가정이나 생활고로 혼자 방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학력은 학업성적, 부모관심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보다는 대졸 이상이 학업성적스트레스와 부모관심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학력에서도 고졸 이하 보다 대졸 이상의 집단이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경제와 관련이 높으며,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더욱 높은 관여를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력은 교육비 지출 및 교육열에 관련이 높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지향적이고 교육열도 높아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강선⁶⁹⁾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용돈은 친구관계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5만원 미만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집단 보다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더 높아 용돈이 많은 집단이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시 돈의 지출이 필요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돈이 적은 경우는 용돈이 많은 친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낮아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인구통계적 특성 중 학교유형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동거여부는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부모학력은 학업성적스트레스 및 부모관심스트레스에, 용돈은 친구관계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조의 형태,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강선⁷⁰⁾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t-검정,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같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학교유형 및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문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계 학생의 경우 인문계 학생에 비해 대입진학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모관리행동이나 몸매 가꾸기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용돈은 10만원 이상이 10만원 미만의 2집단 보다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헤어스타일 변화와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화장품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		심리적 변인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학업성적	부모관심	친구관계
학교유형	인문계(n=235)		3.28	2.66	3.39	1.88
	전문계(n=156)		3.00	2.37	3.11	2.01
	t		4.34**	3.38**	3.93**	.07
부모 동거여부	부모동거(n=311)		3.10	2.39	3.01	2.02
	부모비동거(n=75)		3.20	2.59	3.34	1.91
	t		-1.14	-1.85	-3.39**	1.25
부학력	고졸이하(n=194)		3.11	2.44	3.16	1.95
	대졸이상(n=190)		3.23	2.67	3.39	1.93
	t		-1.79	-2.68**	-3.11**	.22
모학력	고졸이하(n=236)		3.13	2.50	3.20	1.92
	대졸이상(n=143)		3.25	2.63	3.40	1.97
	t		-1.79	-1.54	-2.58**	-.75
용돈	5만원 미만(n=157)		3.09(b)	2.52	3.16	2.08(a)
	5~10만원 미만(n=140)		3.20(ab)	2.56	3.36	1.86(b)
	10만원 이상(n=82)		3.28(a)	2.56	3.33	1.77(b)
	F		2.43*	.09	2.97	6.91**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결과(p<.05)

한편, 부모동거여부,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형에 긍정적이라고 한 전경란, 이은희⁷¹⁾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3.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측정 변수 간 상관관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3에서 보면,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3개 변인과 외모관리 중 2개 변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업성적과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반면에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이는 부모의 애착과 친밀감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조사와 일치한다⁷²⁾.

한편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욕구와 다이어트행동에서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이 있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성형욕구와 다이어트행동을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신뢰감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을 것으로 나타난 박은정, 정명선⁷³⁾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Table 4에서 보면,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즉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정도가 높았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 다이어트에 의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기 때문에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특성		외모관리행동	화장 및 헤어스타일연출	성형욕구	다이어트
학교유형	인문계(n=235)		2.27	3.11	1.91
	전문계(n=156)		2.48	3.06	2.13
	t		-2.62**	.39	-2.64**
부모 동거여부	부모동거(n=311)		2.46	3.12	2.13
	부모비동거(n=75)		2.32	3.19	1.97
	t		1.45	.21	1.51
부학력	고졸이하(n=194)		2.36	3.00	2.03
	대졸이상(n=190)		2.33	3.20	1.97
	t		.39	-1.70	.83
모학력	고졸이하(n=236)		2.34	3.05	1.99
	대졸이상(n=143)		2.36	3.21	2.02
	t		-.209	-1.32	-.27
용돈	5만원 미만(n=163)		2.19(b)	3.01	1.97
	5~10만원 미만(n=142)		2.41(ab)	3.12	2.01
	10만원 이상(n=83)		2.53(a)	3.20	2.06
	F		5.94**	.89	.34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결과(p<.05)

<Table 3>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

변인들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학업성적	-.203**
	부모관심	.373**
	친구관계	-.415**
외모관리 행동	화장 및 헤어스타일연출	.087
	성형욕구	-1.55**
	다이어트	-.240**

**p<.01

<Table 4>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

외모관리행동	스트레스		
	학업성적	부모관심	친구관계
화장 및 헤어스타일연출	.172**	-.030	.144**
성형욕구	.159**	-.006	.029
다이어트	.132**	.050	.180**

**p<.01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만족할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희⁷⁴⁾, 이은경⁷⁵⁾, 이현옥, 구양숙⁷⁶⁾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4.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모관리행동 3개 변인, 스트레스 3개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5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한편 독립변인 중 학교유형은 전문계 1점, 인문계 0점, 부모동거여부는 비동거 1점, 동거 0점으로 하여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Table 5와 Fig. 1에서 자아존중감에 외모관리행

동, 스트레스, 인구통계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친구관계스트레스(beta=-.315, $p<.01$), 부모관심스트레스(beta=.317, $p<.01$), 다이어트(beta=-.192, $p<.01$)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3.0%이었다. 즉,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낮고,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높으며, 다이어트 행동을 적게 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유형은 부모관심스트레스와 학업성적스트레스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스트레스 3개변인은 다이어트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교육, 부모동거여부는 부모관심스트레스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용돈은 친구관계스트레스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로써 학교유형, 부모관심스트레스, 친구관계스트레스, 학업성적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다이어트는 친구관계스트레스(beta=.154, $p<.01$), 학교유형(beta=.159, $p<.01$), 학업성적스트레스(beta=.155, $p<.01$), 부모관심스트레스(beta=.129, $p<.01$)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4개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7.5%이었다. 즉, 전문계 학생이며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성적 및 부모관심 스트레스 높을수록 다이어트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전문계 학생이 인문계학생보다 다이어트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적스트레스는 학교유형(beta=-.180, $p<.01$)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3%이었다. 즉 인문계 여학생이 전문계 여학생보다 학업성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심스트레스는 부교육(beta=.159, $p<.01$), 동거여부(beta=-.152, $p<.01$), 학교유형(beta=-.124, $p<.01$)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8%이었다. 즉 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동거시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높으며, 인문계 여학생이 전문계 학생보다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관계스트레스는 용돈(beta=.167, $p<.01$)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설명력은 2.8%이었다. 즉 용돈이 적을수록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볼 때 부모동거여부는 부모관심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부모동거여부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Table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N=391)

종속변인		독립변인	<i>b</i>	<i>beta</i>	<i>t</i>	<i>overall F</i>
자아존중감		친구관계스트레스	-.295	-.315	-6.76**	$R^2=0.30$ $F=50.6^{**}$ $D-W=2.07$
		부모관심스트레스	.277	.317	6.93**	
		다이어트	-.156	-.192	-4.23**	
외 모 관 리 행 동	다이어트	친구관계스트레스	.176	.154	2.86**	$R^2=0.075$ $F=7.40^{**}$ $D-W=1.81$
		학교유형	.257	.159	3.01**	
		학업성적스트레스	.147	.155	2.87**	
		부모관심스트레스	.136	.129	2.41*	
스 트 레 스	학업 성적	학교유형	-.306	-.180	-3.50**	$R^2=0.03$ $F=12.3^{**}$ $D-W=2.11$
	부모 관심	부교육	.162	.159	3.04**	$R^2=0.08$ $F=11.0^{**}$ $D-W=1.99$
		동거여부	-.290	-.152	-3.03**	
		학교유형	-.190	-.124	-2.37*	
	친구 관계	용돈	-.121	-.167	-3.26**	$R^2=0.28$ $F=10.65^{**}$ $D-W=1.99$

* $p<.05$, ** $p<.01$, $D-W$ =Durbin Watson 계수

<Fig.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과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인문계 학생의 경우 전문계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으므로 인문계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 및 진학문제로 인한 압박이나 부모와의 갈등이 전문계 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해석된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외모관심이 높은 시기로 외모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시 된다⁷⁷⁾.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가 전문계보다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 및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동거여부는 부모비동거가 부모동거 시 보다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학력은 고졸 이하 집단 보다는 대졸 이상 집단이 학업성적스트레스와 부모관심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

았으며, 모학력은 고졸 이하 집단 보다 대졸 이상 집단이 부모관심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용돈은 5만원 미만의 집단이 5만원 이상의 집단보다 친구관계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 보다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 다이어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은 10만원 이상의 집단이 10만원 미만의 집단 보다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동거여부, 부모학력에 따라서는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성형욕구와 다이어트에서 유의적인 관계가 있었다. 즉 학업성적과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관심스트레스는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이어트를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모관리행동정도가 높았으며,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화장 및 헤어스타일 연출, 다이어트에 의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모관리행동 3개 변인, 스트레스 3개 변인,

인구통계적 변인 5개 등의 독립변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모관리행동 중 다이어트에 관한 행동에는 친구관계스트레스, 학교유형, 학업성적스트레스, 부모관심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업성적스트레스는 학교유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모관심스트레스는 부교육, 동거여부, 학교유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유형은 부모관심스트레스와 학업성적스트레스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스트레스 3개변인은 다이어트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볼 때 다이어트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인문계 여고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동거여부는 부모관심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이어트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동거여부가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친구와 부모관심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환경, 외모관심에 의한 외모관리행동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유형의 경우는 전문계 여학생이 인문계 여학생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교서열화에 의한 사회의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학업성적 및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관계 등의 심리적 요인과 다이어트 행동 등의 외모관리행동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관심 및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정신적·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모관리행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자를 전문계 고교와 인문계 고교로, 부모의 학력을 고졸이하, 대졸이상으로, 성적분포도를 상, 중, 하 그룹으로 구분지어 임의표집 되었으며, 지역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관리행동과 스트레스의 측정도구가 제한된 문항으로 조사되어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폭넓고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모관리행동 및 스트레스의 측정 문항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각 차원과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손광민, 차영아, 남상인(200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21, pp. 131-154.
- 2) James, W.(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박지연(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에서 재인용.
- 3) 보건복지부(1998), *국민건강, 영양조사 1998: 청소년건강실태*, pp.102-104.
- 4) 오선영(2012),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9-73.
- 5)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2012. 4. 19),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2. 8. 9, 자료출처 <http://sportsworldi.segye.com>.
- 6) “청소년기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 ? 여드름과 여드름흉터”, (2012. 07. 13), *중앙일보*, 자료검색일 2012. 08. 10,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msn.com>.

- 7) “틴에이저의 외모 가꾸기 열풍”, (2008. 12. 28), *헬스조선*, 자료검색일 2012. 8. 9, 자료출처 <http://health.chosun.com>.
- 8) 하경연(2011. 6. 10), “청소년의 유행추구성향 및 매스미디어 활용도가 연예인 헤어스타일 동일시 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 춘계학술지 발표논문집*, pp.126-129.
- 9)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 논란, 우리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가?”, (2011. 8. 22), *뉴스쉐어* 자료검색일 2012. 8. 3, 자료출처 <http://www.newsshwere.co.kr>.
- 10) 이근복, 정우석, 염유식(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학습수준에서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5(5), pp.75-107.
- 11) 김만지(2002),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적극적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3, pp.76-93.
- 12)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기신뢰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3), pp.103-126.
- 13) 한건한, 장휘숙, 안권순(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방식 및 문제 행동에서 자기 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1(3), pp. 385-402.
- 14) 원호택, 이민규(1987),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1), pp. 22-32.
- 15) 박금화(2006), “청소년이 지각한 학교 스트레스, 교사, 친구 지지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윤종선(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한건한, 장휘숙, 안권순(2004), op.cit., pp. 385-402.
- 18) 김선희(2005),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모감독 및 자아개념 상호작용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학업 스트레스 최고... 19.5% “자살 계획했다”, (2012. 4. 19), *e시/사 코리아뉴스* 자료검색일 2012. 08. 09. 자료출처 <http://sisa.sbsonline>.
- 20) 임은희, 남현주(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pp.23-48.
- 21) 위휘(2005), “청소년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2), pp.129-138.
- 22)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op.cit., pp. 103-126.
- 23) 신현숙, 구본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 pp.189-225.
- 24) 백양희, 최외선(1997), “환경변인 및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농촌, 도시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2), pp.33-47.
- 25)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op.cit., pp. 103-126.
- 26) 염행철, 조성연(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 pp.1-21.
- 27) 이철(2009), “가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종합 긴장모형과 세부 긴장모형을 통한 탐색”, *청소년학연구*, 16(3), pp.237-257.
- 28) 장병혜(2003), *아이는 99% 엄마의 노력으로 완성된다*, 중앙 M&B출판, pp.7-29.
- 29) 김언주, 이동수(1978), “대학생의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정서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발전논총*, 1(1), pp.125-141.
- 30) 남덕진, 이종승(2002), “초기 가정환경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 *교육학연구*, 40(3), pp. 111-30.
- 31) 동덕여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6), *인간발달*, 서울: 대한교과서, p.105.
- 32) 유안진, 이정숙, 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

-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pp.161-180.
- 33) 김정현(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 의 조절효과: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pp.161-183.
- 34) 공정석(2011), “부모 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울감의 매개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6-54.
- 35)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5-56.
- 36)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pp.96-117.
- 37) ‘부정적 언어습관이 자식농사 망친다’, (2012. 4. 15), *C/트뉴스24* 자료검색일 2012. 08. 26, 자료출처 <http://www.dtnews24.com/news>.
- 38) 최희영(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39) 이호근, 김영문, 정혜주(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209-212.
- 40) 김광웅(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및 상담심리치료*, 19(4), pp.983-999.
- 41)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 (2011), op.cit., pp. 103-126.
- 42) 임지혜(2011), op.cit., pp.43-44.
- 43) “키 작으면 우울증도 3배 높아”, (2012. 2.10), *세계일보* 자료검색일 2012. 08.10, 자료출처 <http://sportsworldi.segye.com>.
- 44) 박은정, 정명선(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717-730.
- 45)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 7(4), pp.17-25.
- 46) 장선철, 송미현(2004),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pp.115-133.
- 47)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 174.
- 48) 강혜원(2003),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263.
- 49) “성형수술 하고 싶은 이유 1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2012. 7. 24), *뉴스시스* 자료검색일 2012. 8. 10, 자료출처 <http://www.newsis.com>
- 50)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pp.99-108.
- 51) 임지혜(2011), “여자 청소년의 외모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3-44.
- 52) 이현옥, 구양숙(2009), “사회적 자기효능감, 외모관심, 외모만족,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계층적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p.271-277.
- 53) 유창조, 정혜은(2002), “소비자의 아름다움 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남성의 치장과 여성의 화장, 성형 및 피트니스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3(1), pp.211-232.
- 54) 전경란, 이은희(2005), “청소년의 욕구가 성형 및 의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1), pp.119-132.
- 55) 유창조, 정혜은(2002), op.cit., pp. 211-232.
- 56) 김은주(200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3-54.
- 57) 오경화, 김현숙(2011),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자기관리, 외모만족도 및 유행의사선폭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10), pp. 71-79.
- 58) 이종순(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 외모관리 양상 분석: 의복, 피부관리, 몸매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2), pp. 384-395.
- 59) 설현진, 최인려(2010), “중, 고등학교 여자 청소년의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3), pp.514-525.
- 60) Coopersmith, S. (1967), op.cit., pp.96-117.
- 61) 장영숙(2002),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2) 손광민 외(2008), op.cit., pp.131-154.
- 63)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op.cit., pp. 103-126.
- 64) 이근복, 정우석, 염유식(2008), op.cit., 15(5), pp.75-107.
- 65)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학력과 입시에 비례하는가?’, (2012. 3. 23), *뉴스한국* 자료검색일 2012. 8.18, 자료출처 <http://www.news.hankuk.com/news>.
- 66) 김요셉, 김성천, 유서구(2011), op.cit., pp. 103-126.
- 67) 김정현(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기지의 조절효과: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pp.161-183.
- 68) 임은희, 남현주(2008),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 스트레스 간의 상호작용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3), pp.23-48.
- 69) 이강선(1999), op.cit., pp.40-47.
- 70) Ibid., pp.40-47.
- 71) 전경란, 이은희(2005), op. cit., pp. 119-132.
- 72) ‘학교폭력, 부모들 대책 어떻게’, (2010. 02. 27), *동아.com* 뉴스 자료검색일 2012. 8. 30,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
- 73) 박은정, 정명선(2010), op.cit., pp.717-730.
- 74) 김선희(2003), op.cit., pp.99-108.
- 75) 임지혜(2011), op.cit., pp.43-44.
- 76) 이현옥, 구양숙(2009), op. cit., pp. 271-277.
- 77) ‘청소년기 우울증의 또 다른 원인 ? 여드름과 여드름흉터’, (2012. 7. 13), *중앙일보* 뉴스 자료 검색일 2012. 8.30, 자료출처 <http://article.joinsmsn.com/news>.

접수일(2012년 9월 9일),
수정일(1차 : 2012년 10월 5일, 2차 : 10월 19일),
게재확정일(2012년 10월 29일)